

야간 즐길거리 늘린다는 서귀포시 효과 주목

서귀포시, '금토금토 새연쇼' 4월부터 당겨 운영
인근 천지연폭포 관람로 조명등 42년 만에 정비
새롭게 드론라이트쇼·하영올레 야간걷기도 추진

서귀포시가 머물고 싶은 도시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도심과 새연교를 중심으로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기로 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새연교와 인접한 천지연폭포의 관람로 조명 등도 42년 만에 재정비한다.

시는 '금토금토 새연쇼'를 지난해보다 확대 운영하고, 올해 새롭게 '드론라이트쇼'와 '하영올레 야간 걷기행사'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7~10월 매주 금·토요일에 운영해 4만2000여 명이 관람했던 금토금토 새연쇼는 올해는 4월부터

시기를 앞당겨 총 40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5월 가족의 달, 8월 광복절과 여름 워터밤, 9월에는 추석 특집 등 계절·테마별 특화공연을 확대하고, 때 공연마다 선보였던 불꽃쇼는 특별공연 때는 2분에서 3분으로 시간을 늘려 다양한 불꽃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출신이거나 거주하는 가수 등의 출연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인증 스템프 발급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로 재방문을 유도하고, 주변

상권과 연계한 행사 참여자 할인 이벤트로 준비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야간관광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스토리텔링을 담은 화려한 드론쇼를 즐길 수 있는 '빛나는 서귀포의 밤 드론라이트쇼'를 야해(夜海)페스티벌, 칠십리 축제, 읍·면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해 4차례 선보이기로 했다. 원도심을 걷는 '하영 걷자, 하영올레길 걷기행사'도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역점사업 중 하나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8억4000만 원을 들여 '천지연 관람로 조명등 정비사업'도 상반기 안에 마칠 계획이다.

1984년 야간 관람을 시작한 후 처음 실시하는 조명등 정비로, 노후조명등 9종·185개를 전면 교체

한다.

천지연폭포 관람로에 설치된 조명등은 설치 후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가 심각해 고장이 잦아 안전 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서귀포시는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유산청과 긴밀한 협의 끝에 국비 사업으로 선정,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귀포시를 잠시 지나치는 곳이 아닌, 머무르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며 "새연교와 가까운 천지연 관람로 조명등도 40여 년 만에 전면 교체해 야간 관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는 2028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하수처리시설 1단계 완공... 약취 절반·수질 10배 개선

올해 핵심 처리시설 완공
2028년 1월 전체 완공 목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도두동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약취 저감과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4386억원

의 예산을 들여 제주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제주시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량 증가에 대비해 처리 용량을 하루 13만t에서 22만t으로 늘리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시작해 지난해 12월 말 1단계를 완료했다. 2028년 1월 전체 완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54.1%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지상에 있던 하수처리시설이 모두 지하 밀폐 공간으로 옮겨져 약취 저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약취 정도를 나타내는 복합 약취 기준 300~400배수에서 절반 이하인 173배수로, 법적 기준 (500배수 이하)을 대폭 하회하는

수준이다.

시설 전면 지하화와 완전 밀폐 설계, 무중단 공법 적용으로 공사 과정에서도 약취 발생을 최소화했다. 약취 처리 용량을 2.4배 확대하고 환기 횟수도 2배 가까이 늘려 약취 관련 민원도 거의 없는 상태다.

새 시설 가동 후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기준 4.7mg/L에서 0.5mg/L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법적 기준 (10mg/L)을 크게 밀도는 수준이다.

부유물질(물속 떠다니는 찌꺼기)도 7.4mg/L에서 0.4mg/L로 대폭 줄었으며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아 위생 안전성도 확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까지 전처리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등 2단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단계로 시설 상부에 생태공원과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이 찾는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완성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아케이드 누수 구간 정비

쿨링포그 설치 등 추진

서귀포시는 매일올레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총 6억9000만원을 들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은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둬 방문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매일올레시장 아케이드 누수 구간 정비에서부터 노후된 수경시설 정비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쿨링포그도 설치해 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의 영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이번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생활형 상권 거점으로 육성하고, 체류형 소비 촉진과 재방문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제주시, 4만5850명에 공공일자리 제공

2686억원 투입해 민생 안정·지역경제 활력 도모

제주시는 올해 2686억원을 투입해 총 4만585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 업무 보조, 공공시설 관리·운영 지원, 도로·주차장·공원 환경 정비 등 345개 직접일자리 사업에 858억원을 투입해 2만3145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어린이집 등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221개 사업에 1818억원을 투입해 2만2555명의 일자리를 간

접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민간 복지 분야 등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또 청년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콘서트, 국내 기업 견학,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채용 등 5개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해 청년층의 취업 역량 강화와 원활한 사회 진입을 돋пуска.

시는 지난해에는 536개 사업에 2857억원을 투입해 총 4만4829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했다.

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 수강생 모집

외국어·자격증반 등 13개 강좌에 310명 모집

제주시는 시민들의 능력 계발과 여가 활용을 돋기 위해 참사랑문화의집 제1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31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2월 10일부터 5월 3일까지 석달 간 운영된다. 강좌는 일반강좌·강사 양성·자격증반 등 6개 분야 13개 강좌다. ▷ 외국어 (영어회화 초급, 일본어회화 중급) ▷ 건강 (생활요가, 라인댄스) ▷ 문화예술 (수채화그리기, 문인화, 서예교실) ▷ 자기계발 (한국무용, 우쿨렐레 초급, 오카리나 초급, 노래교실) ▷ 전문가과정 (치매예방 강사 양성) ▷ 자격증반 (정리수납 2급) 등이다. 특히 치매예방 강사 양

성과정을 비롯해 오카리나 (초급), 노래교실 과정 등은 올해 신규 개설했다.

수강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7일 까지 선착순으로, 제주평생교육다 모아 (<http://damoa.jeju.kr>)에서 하면 된다.

수강료는 3만원 (1개월 기준 1만원)이며, 교육 중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간에 따라 수강료 일부가 반환된다. 다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주 4·3 사건 희생자, 다문화 가족 등은 수강료가 면제된다. 교재비·재료비는 수강생 본인 부담이다. 문의 728-3957, 3959. 문미숙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디인굴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디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 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세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증사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